



- 웨신총회 신년사 -

## “2019년 평강이 넘치시는 새해로”

할렐루야!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 예수 믿게 하시고 세상과 죄의 억압과 구속에서 자유함 주시고 소망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제 2018년도는 역사 속으로 지나 갔습니다. 새로운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시고 그 길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새롭고 희망찬 비전의 2019년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실천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총회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써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



허창범 목사  
웨신총회 총회장

다. 그러기 위하여 첫째, 나부터 개혁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고후5:17)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며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고후2:15) 그리스도의 편지(고후3:3)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한 번 회개하고 통찰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한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멋진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한 일을 하시는 은혜의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창1:31) 새해에는 내 야심, 내 비전, 내 계획, 내정유의 욕구 충족실현을 위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

획,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하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살리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마6:33)

셋째는 2019년도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20:21) 그리스도의 살림의 평강이 우리의 총체적인 삶의 영역에 임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가정, 사회, 직장과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꿈이요 비전인 남북통일이 되어 우리민족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일치와 통일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 받은 새로운 소망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 “한국교회, 민족의 희망 되길”

### 한교총, 신년메시지 발표



대표회장 이승희 목사, 박종철 목사, 김성복 목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은 최근 신년사를 내고 새해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한국교회총연합과 29개 회원교단은 한국교회가 계속 개혁되고, 영적으로 계속 부흥하여 교회와 민족의 희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해’, ‘민족 통합과 사회 통합을 이루는 해’ ‘기억할 것을 기념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했다.

한교총은 신년사를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통합하는 세상, △역사의 소중한 가치를 기념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고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정책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족 통합, 사회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를 진행하며, 나라 사랑하는 정신과 민족과 이웃과 함께 하는 소중한 가치를 세울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한교총은 “우리는 끊임없는 교회의 개혁을 통해 성경적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교회 내의 경쟁과 분쟁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직한 교회, 신실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교회총연합은 다양한 교파와 교단을 아우르는 연합기관으로서 보다 더 형제를 소중히 여기며, 보다 더 많이 대화하고 배움으로써 한국교회의 연합을 지켜갈 것”을 다짐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한다”고 전했다.

## 新年辭

지저스타임즈신문 구독자 여러분, JTNTV CP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독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편집인  
정기남 목사

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한 국교회가 이제라도 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질 때 국가를 살리는 길이요 이 민족을 생명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직 기도이며 기도만이 핵 포기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적폐란 단어도 없어야 하고 오직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정한 정치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앙의 자유가 보장 될 것입니다.

국정의 책임을 맡은 정치인, 대법관 사법부는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대변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이 국익을 위한 길인지 제발 우리 국가와 민의를 살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불안한 정치는 주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2019년도는 적폐가 없는 다짐은 한민족이요 형제, 자매요 정치인들과 대통령은 공정한 잣대로 민의를 보듬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은 정론직필로서 공정 보도를 실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날조된 허위 보도, 국민을 기만하는 편파 보도는 접어야 합니다. 현재 다수의 국민들의 귀는 인터넷방송과 유튜브에 가 있습니다. 모든 방송과 언론은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언론은 나라의 민주화와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을 갖고 평화통일, 민족화합,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기 위하여 제자리를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종편등화와 같은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으로써 국민의 송မွ를 조이는 악법들의 쇠사슬을 풀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위정자들도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제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거듭 말해서 우리나라가 살길은 언론이 살아야 하고 정치인이 살아야 합니다.

1000만 기복인들이여 국가의 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각 교단 총회장, 기관장들이여 제발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부흥과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길 믿습니다. 분명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1000만 성도가 있습니다. 기도로 뭉쳐야 합니다.

지저스타임즈 신문과 jmtv방송, CP방송은 문서선교 사역을 위하여 직원 모두는 애독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만남으로 묶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한 복음전파 사역을 위하여 말입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한분 한분이 세계를 향한 문서선교에 소중한 분들입니다. 지저스타임즈 신문방송은 애독자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선교에 자신감을 갖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력을 갖고 살아가시는 2019년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www.mokpodream.org

#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2019년 3명 이상 전도하는 성도되자...

### 예배시간

- 주일 1부예배 (일) 오전7시30분
- 주일 3부예배 (일) 오전 11시
- 주일밤 찬양예배 (일)저녁7시30분
- 삼일밤예배(수)저녁7시30분
- 금요일아예배 (금)저녁9시
- 새벽기도회 새벽5시
- 오후기도회 오후 3시 : 저녁기도회 저녁9시 : 초야기도회 새벽0시30분

대한예수교장로회

# 꿈의교회

DREAMS COME TRUE...



담임목사 이요셉

주소 : 전남 목포시 산정로322-3(연산동) 전화/061)277-0496 차량운행 : BUS 3번, 60번, 61번, 600번



소강석 목사 12월 넷째 주일 목양칼럼

『진심과 중심』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담임

제가 몇 주 전 한국교회 주요 목사님들과 함께 민주평통 김덕룡 수석부의장님과 조명균 통일부장관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평화의 꽃길을 열어 가는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좋은 관계를 이루고 남북의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들 한미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측을 향하여 주는 애정을 미국에도 좀 전달을 하면 좋겠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마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과연 트럼프 정부가 우리 정부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생각해 보셨는지요. 현실적으로 미국의 도움 없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작년 구구절절 북한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못 마땅하게 여기니까 못 간 것이 아닙니까? 중국도 트

럼프의 눈치를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겠습니까? 물론 지나치게 눈치를 보자는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친미주의로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 민족끼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룬다 하더라도 대북제재가 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CVID를 단 한 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단계적으로 핵을 포기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과 공조를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한미관계에 있어서 한국교회만큼 요긴하게 쓰임 받을 도구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정부가 노력을 해도 정부와 정부끼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한국교회를 소통의 수단과 도구로 잘 사용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 현 정부는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를 속도를 내서 통과시켰는데 우리가 합니다. 물론 NAP 자체는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경등을 비롯하여 독소 조항으로 발전할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언젠가 남북이 평화공존 상태에서 더 깊은 교류를 하게 될 텐데 과연 북한 주민들이 NAP를 금방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진정한 남북평화와 교류를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논리적이고도 일목요연하게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이 동석했던 목사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소목사님, 속이 시원했어요. 역시 소 목사님이예요.”

그런데 며칠 후 통일부장관을 만나고 온 목사들을 좌파목사라며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들인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과 통일부장관을 만나고 왔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적인 진리와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측면에서는 보수주의 목사입니다. 예컨대, 동성애, 이슬람, 종교인 과세 등 건전한 목회생태계를 지키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장에서 싸우는 검부사처럼 전면에 나서서 일을 했습니다.

사실 대형교회 목사가 그런 광장 집회에 가면 얼마나 체면이 구겨지고 위신이 상하니까? 그러나 그때 그때 진보진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려 있어서 온전한 진보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양을 예닐곱 번을 다녀왔지요. 그런데 이럴 땐 보수진영으로부터 변질된 목사라고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국방이나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행사를 12번이나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북과 전쟁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다시는 한반도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고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자는 취지로 해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우와 극좌가 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에 진심과 진정성을 일러고 하

지 않고 무조건 공격부터 하고 갈등을 부추깁니다. 이런 때 일수록 교계가 어느 한 정파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든 아홉 항상 진심으로 대해왔고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진심과 진정성 위에서 중심의 균형을 지켜온 것입니다. 이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권이 바뀌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안에서 깊은 진심과 진정성이 아름답게 발휘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양극단이 아닌, 진심 그리고 중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양대학교 대순진리회 성주방면에 매각 의혹

고봉 김치선 박사 설립대학... 학교법인 우일학원 일부 이사 대진교육재단 관계자로 교체 정황



대한신학교(설립자 고봉 김치선 박사) 전신인 안양대학교(이사장 김광태 장로(과천은파감리교회))가 타 종교인 대순진리회 성주방면(이하 대진성주회)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에 넘어가고 있는 정황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대학교 학교법인 우일학원은 지난 8월 17일 이사회서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관계자인 A 모씨와 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북 상주 소재 호텔 관계자인 B 씨 등을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법인 우일학원은 최근에 도 이사인 모씨를 사퇴시킨 후 대진

성주회측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일학원 한 관계자는 “대순진리회 상주방면(이하 대진성주회)이 설립한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관계자들이 이사로 교체된 것은 사실이다”면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도 물었다”고 밝혔다.

안양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최근에 열린 이사회를 통해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안양대학교와 인준관계에 있는 대진총회 관계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교단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전혀적인 사학 매각 과정으로 보인다”면서 “교과부를 속이기 위해 시간을 두고 이사들을 교체하는 뒷면 거래 수법이다”고 지적 했다. 이 관계자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우선적으로 계약금 액수에 따른 이사를 교체한 후 중도금을 받은 후 다시 금액 만큼 이사들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나머지 잔금을 받은 후 이사장이 가는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사립학교의 경우 교과부 승인 없이 매각할 경우 불법이며, 일체의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신 총회 한 관계자는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사법 당국에 고발을 할 계획이다”면서 “양측 법인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진 성주회는 불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업자는 임대, 부동산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진 성주회 산하에는 중원대학교가 속한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을 비롯해

화양리의 재인병원(구 재인한방병원), 대전오양원, 강원종합박물관, 동해약원온천 실버타운, 가야호텔, 동해보안온천 컨벤션호텔 등이 있다.

한편 우일학원 이사장 김광태 장로는 대한신학교를 인수한 고 김영실 장로(학교법인 문일학교 초대 이사장)의 장남으로 과천은파감리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최근 이사회를 마친 후 미국으로 출국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우일학원과 학교법인 문일학원을 운영해 왔으며, 모두 기독교 학교다. 문일학원은 서울 시흥 소재 문일 중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우일학원 김광태 장로는 98년부터 2003년까지 이 학교 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안양대학교는 대한신학교의 전신으로 고봉 김치선 박사가 설립한 70년 된 기독교 대학이며, 대신 교단의 직영 신학교로 한 때 운영 됐으나 고 김영실 장로에게 매각 되면서 인준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교로 그간 발전해 왔지만 타 종교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본질을 회복하는 한국교회 되길”

한기총 한기연 신년메시지 발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임기호 목사)와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나란히 신년메시지를 발표하고 2019년 회담에 찬 새해 아침에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했다.

한기총은 메시지를 통해 “새해에는 회개를 통해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성경적 기준의 삶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될 때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한기총은 “2019년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창립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30년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올해를 ‘도약의 한 해’로 정하고 이전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과거의 것을 통해서 배우며, 준비하여 새로운 소망의 2019년을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한기연은 신년메시지를 통해 “주님은 새해를 맞은 우리 모두가 죄에서 떠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사에 기록할 유례없는 부흥, 성장기에 이어 연단기에 접어든 지금은 더욱

겸허하게 자신과 이웃,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며 복음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한기연은 “새해는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교회 일치와 연합을 통한 교회의 하나됨과, 민족복음화의 사명,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서서 섬김을 다하기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07837번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 이종진 목사 이사장 : 허창범 목사 사장 : 소진우 목사 발행인 : 장남 목사

-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암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vcip@naver.com
- ▶전화 : 전화: 032)574-6574, 팩스: 032)672-3031
- ▶H.P : 010-5468-6574
-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지림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 ▶1년 구독료 : 48,000원
-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예장(진리)총회 · 대한노회 2019 · 예언의나팔을불자!

주제 :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계 1:3절)

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박민규 목사 (전성교회)	 전상렬 목사 (새에루살렘교회)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유순옥 목사 (조애교정성교회)	 김정미 목사 (새에루살렘교회)	 김진환 목사 (주사랑교회)	 정요한 목사 (꿈의교회)



새해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2019년 새해 인사 : 주님 다시 오십니다. 총회장 : 장한국 목사 외 임원일동 배상  
예장진리총회는 뜻을 같이할 개 교회 및 노회와 총회통합과 가입을 환영합니다.

총회 / 노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내손동)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박민규 목사 H.P 010-9621-9627





#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총회



강대일 박사  
합동(보수)총회 총회장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 하실 때 독 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베필로 하 이를 지으셨습니다(창 2 : 18), 이로 보건 데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할 존재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생각하고 자 하는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 입니다. 교회는 "구원 받은 자들이 모인 곳"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란 말입니다.

나되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고전 11 : 1에서 바울 사도는 나를 본 받으라고 말 합니다. 나는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대가 (大家)들을 몇 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입니다. (욥 22 : 29) 모든 죄의 어머니는 교만이란 말이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 되는 총회가 되십시오.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나가 나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여 낫게 해 주었습니다.

의 육체적 고통, 등) 2)인간으로부터 오는 고난(아내, 친구들 3인이 3번씩, 유력인 사- 엘리후)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참고 견디었습니다.

### 하나 되려면

#### 1. 겸손해야 합니다.

엡 4 : 2에 "모든 겸손"과 라고 했습니다. 뱀전 5 : 5-6 = 겸손으로 허리를 동 이라고 말씀 합니다. 겸손에는 보상이 따 립니다(잠 22 : 4,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를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 고통을 허락 하

2. 온유해야 합니다(엡 4 : 2) 성경의 온유의 모본을 보인분은 모세입 니다. 민 12 : 1-16절 온유는 인간 관계 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과 의 관계에서 온유 했습니다.

3. 오래 참아야 합니다(엡 4 : 2) 사람은 주로 두 가지 면에서 고통이 옵 니다. 1)환경으로부터 오는 고통 2)인간들 로부터 오는 고통, 이런 고통이 올 때 인 내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본은 욥입니 다(약 5 : 11)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이 와도 하나 되 기 위하여 인내 합니다.

#### 4.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엡 4 : 2)

용납은 "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 로라는 단어가 다른 부분 보다 삽입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 주는 것입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무시하 고 업신여겨도 상대를 받아 줍시다. 우리

총회가 새해에는 하나 되는 총회가 될 줄 로 믿습니다. 나는 "함께"라는 단어가 마 음에 듭니다. 우리 함께 하나가 되기 위 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할렐루야!



##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본연의 자세 감당할 터"

### 한기총, 제28회 한국교회의 밤 개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 호 목사, 이하 한기총)는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 28회 한국교회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후 1부 예배, 2부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지도자상 시상식, 3부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환영사를 전한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한국교회의 밤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연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한기총은 지난 1년 간 대정부-대사회를 향해 기독교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하나님의 공 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엄기호 대표회장은 "한기총은 앞 으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 고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 말을 맞아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에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고 권 면했다. 예배는 한기총 공동회장 김경환 목 사 사회로 공동부회장 이재희 목사의 기도, 서기 황덕광 목사의 내내소개, 공동회장 박홍자 장로의 성경봉독, 임마누엘서울교회 연합찬양단의 찬양 후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 로, 한기총 명예회장)가 설교했다.

조용기 목사는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희망이다. 희망 없이 우리는 살 아갈 수 없다"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축복이 아니고서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은 성도 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희망 을 주신다. 그 희망을 통해 우리는 앞 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공동회장 이병 순 목사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공 동부회장 김은복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공동회장 조갑문 목사가 '한 기총 회원교단과 단체를 위하여' 각 각 기도했다.

이날 축사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 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이 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다. 하나님 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에 이룬 나라가 됐다"며 "이러한 육 적 은혜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돌 아주셔서 세계 각국에 2만 7천명 이 상의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대국으 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다. 잘 아시듯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때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는 나 라가 되도록 하려면, 우리 기독교인

들이 마땅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 라며 "지난 20년간 한기총이 그러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한기총이 힘을 합해 이 땅 에 복음이 편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잘 해 주시 리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 도 문화체육관광부 김갑수 종무실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축사했다.

이어 증경대표회장 길지연 목사는 격려사를,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 기 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박종철 목사, 평강침례교회 이승현 목사가 격려사 를, 명예회장 이승렬 목사의 축사로 예배는 마무리됐다.

2부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지도자 상 시상식은 공동부회장 정학재 목 사 사회로 백석예술대 김한나 교수 의 축가와 명예회장 이강평 목사의

공적발표 후 시상식에서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지도자상' 수상자는 지 도자대상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정 치인대상에 이낙연 국무총리, 전도특 별대상에 류광수 목사, 목회자대상에 백남선 목사, 경찰선교대상에 김상운 목사, 부흥사대상 윤호균 목사, 신학 인대상 목창균 교수, 군중목회대상 육군중목사단장 노명현 대령, 기 독교사회봉사대상 최창환 장로 등이 다. 이 외에 한기총 신천지대책위원 장 홍계환 목사(예장 장신 총회장) 는 신천지 대책활동 공로로 감사패 를 받았다.

2부 행사에 총무협의회장 김경만 목사의 구호제창,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의 광고, 참석 내빈들의 케익커 팅, 명예회장 하태조 장로의 만찬기 도 순으로 마무리됐다. 3부에서는 클 래식 공연이 진행됐다.

## 서울예술신학교 제4회 송년예술대축제 개최

꾸미오리 김창숙 목사(본지 JTNTV방송 상임이사) 특별출연

2018 송년예술대축제가 지난 12월 18일(화)오후 4시 서울시 강남구 강 남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 서울예술 신학교(총장 박상문 목사, 동아예술 단 주관으로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 쳤다.

이날 사회에 찬양음악학과 원선 희, 선교무용학과 송은희 진행으로 시작된 공연은 서울예술신학교 교 수, 졸업생, 재학생, 신지예술신학교 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출 연연진은 1. Musical [지킬&하이드] 중에서 "A New Life"에 황경미, 2. 무용 "기분"에 김창숙, 김도연, 송 은희, 한영실 등이다. 3. 찬양 "사모 곡" 김미화, 4. 찬양울동(복음) "보 혈의 복소리"에 한영실, 5. 기타연 주3중창 원선희, 오세탁, 김미화 등 이 "오직 예수뿐이네"를 연주했다. 6. 무용 "하나님의 군사되어"에 김 창숙, 김도연, 송은희, 한영실, 7. 찬

양 "십자가 그 사랑이"에 손형주, 8. 무용 "꿈이르다"에 김도연, 찬양 "은혜 아니면"에 김은희, 10. 장고춤 "하늘나라 성도들"에 김창숙, 송은 희, 김도연이 출연했다.

또한 11. 찬양 "광야를 지나면"에 원선희, 12. 무용 [舞操(무조)]안춘자 류 "입춤"에 송은희, 13. 찬양 "You Raise Me Up"에 오세탁, 14. 무용 "The Lord's Prayer"에 김창숙, 김 도연, 송은희, 한영실, 15. 중창 "파 송의 노래" 황경미, 원선희, 송은희, 오세탁, 손형주, 김미화 등이며 16. Finale... 관객들과 함께 출연진 전 원 박수를 주고받으며 축제의 장이 되었다.

한편 이날 서울예술신학교교수회, 장로회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총회, 도서출판어머니회가 후 원하고, 총출연: 송승일, 기술감독: 정영미, 무대감독: 조성준, 무대조감 독: 신현민, 음향진행: 고유민, 한국 무용지도: 안춘자, 보컬지도: 정형 진, 한국무용지도: 이재은, 찬양음악 지도 차민석 등이다.



# 祝 謹賀新年 예장총회(합동보수) 2019년 신년하례 공고

주제 :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총회』(엡 2:22)

총신대 이사장	총신대 학장	총회장	목회대학원장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의록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이규필 목사	윤석철 목사	강대일 목사	서동기 목사	정호석 목사 (사랑교회)	윤용섭 목사 (안빛교회)	임상국 목사 (전북복지교회)	주지광 목사 (사천대교교회)	서재식 목사 (홍성안교회)	김주현 목사 (빌라델리아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점수 장로 (전북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 2019년 신년하례 ◆

- 일 시 : 2019년 1월 10일(목)오후 1시00
- 장소 : 동천교회 (직전총회장 이규필 목사사무)
- 대 상 : 목사, 사모(부부동반) 교역자
- 12시부터 점심식사 합니다.

◆ 합동보수교단 소속 신학교는 2019년도 신학생을 모집합니다.

2019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 위 에 함께하시며 놀라운 부흥과 성장으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 도드립니다.

총회장 강대일 목사 외 임원일동 배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총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동천교회) H.P 010-7474-3173, 02)854-1326, FAX 496-0181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 靑松 건강칼럼 (671) 1억 모으기

당신도 1억원을 기부할 수 있다

조선일보가 지난 12월 15일자 신문 1면에 에든 청년 얼굴사진과 함께 “멘주먹 26세 사업가도 1억... 기부가 풀려났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12년에는 서른 살 쌍둥이 형제 소꿉친이 5년간 1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실렸다. 또 12월 20일자 신문에는 2014년 신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한 기업체 대표(67세)가 4년 투병 끝에 암을 이기고 일어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란 미국에서는 우수 학생들의 단체를 일컫는 말이며, 다양한 분야 및 환경에 걸쳐 여러 단체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너 소사이어티’는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Community Chest of Korea)가 설립한 고액 기부자 모임이다. 개인 기부 활성화를 통한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현이 목적이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은 정회원, 약정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뉜다. 정회원은 일시 또는 누적으로 1억 원 이상 기부한 개인 기부자다. 약정회원은 5년 이내에 1억 원을 내기로 약정한 개인 기부자다. 특별회원은 가족이나 재산자가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뒤, 대표자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추대할 경우다.

회원에겐 인종패를 수여한다. “(인종패)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너 소사이어티’의 명예로운 회원임을 인증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社會福祉共同募金會)는 1994년 관공서 성금 유용 사건을 계기로 성금 모금과 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1997년 3월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1998년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나눔의 상징으로 하며, 3개의 빨간 열매는 나·가족·아이를 상징한다. 열매의 빨간색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진 줄기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2008년 창립 이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수는 2018년 12월 19일 현재 1981명이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가입했다. 이들 회원들의 연령을 분석하면 50대가 666명(34.6%)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60대(267%), 40대(177%), 70대(134%), 30대(4.9%), 20대(2.8%) 순이다. 회원 중 남성이 1598명(83%)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여성도 첫해엔 한 명도 없었지만 꾸준히 늘어 383명(17%)로 비중이 커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본부장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중에 50대가 가장 많은 이유로 “50대는 직장 일이나 사업을 일정 궤도에 올려놓고 인생을 돌아보는 전환점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에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아 남았을 가난에 공감하는 분들, 나 혼자 힘으로 성공한 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랜 고민 끝에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필자의 경우도 54세가 되던 1994년 9월 11일에 방송된 교육방송(EBS) 라디오 ‘명사와의 대담’ 프로그에 초청되어 필자(당시 한국청소년연구소 소장)의 생애에 관하여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갑 때 될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고 “가능하면 돈을 모아 장학금을 내고 싶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하루 용돈을 5천원 정도로 줄이면서 한 달에 2백만원씩 저축하기 시작했다.

근검절약하면서 5년 동안 저축한 돈이 1999년 12월 회갑(回甲)때 1억원이 되어 사회에 환원했다. 1억원 중 5천만원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재단법인 관악회에 기탁하여 ‘박명운특기(特志)장학회’를 설립하여 2000년 1학기부터 보건대학원 재학생(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2명)에게 매 학기 장학금(박사과정 100만원, 석사과정 50만원씩)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장학금 수여가 계기가 되어 교회(古稀)때에도 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스스로 약속하고 매월 100만원씩 저축하였다. 2000년부터는 연금을 받으면 월 100만원씩 자동 이체하는 방식으로 기부할 돈을 모아 2009년 12월 교회 때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학회’에 3천만원 등 총 1억원을 기부했다.

그리고 팔순(八旬) 때도 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매달 100만원씩 저금을 부었다. 5천만원은 서울대 특기장학회에 추가로 납입하여 ‘박명운·이행자 특기장학회’ 기금이 총 1억원이 되었다. 연세대학교에 회갑과 교회 때 1천만원씩 기탁한 ‘박명운·이행자 의료선교기금’에 3천만원을 추가하여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을 위한 의료선교기금 총 5천만원을 교회 담임목사에게 전달했다.

필자는 회갑, 교회, 팔순잔치를 다일공동체(최외출 목사)에 1일 급식비를 지원하고 가족과 함께 ‘밥퍼’봉사를 했다. 지난 2009년 교회때는 1일 급식비가 150만원이었으나, 올해 팔순잔치에는 급식비를 300만원 지원하여 6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했다. 또한 기념타월을 만들어 다일공동체 직원들과 친지들에게 선물했다.

필자의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회갑 또는 교회에 맞는 사람이 약 50만명이며, 이들 중 사회지도층 1천명이 1억원씩 기부하면 매년 1천억원이 사회에 환원되어 불우 이웃을 도울 수 있다.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앞장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해야 한다.

2009년 12월 11일 서울 청라리 소재 다일공동체에서 교회 기념 ‘밥퍼’ 봉사를 한 후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내용이 조선일보 12월(토요일) 자 신문에 “지도층은 환갑·칠순에 1억원씩 기부합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렸다. 사진 아래에 “박명운 청소년보호위원장은 사회지도층이 마음먹고 절약하면 회갑에 1억원, 교회에 1억원을 기부하는 것은 큰 어려움 없이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고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12월 14일(월요일) 자 신문에 “지도층이 회갑·칠순에 1억원씩 기부합시다” 제목의 사실이 실렸다. 사실의 일부를 소개하면 “박명운 청소년보호위원장은 자신의 회갑 이후 10년 동안 한 달에 100만원씩 모아 장학회·복지기금·자선단체에 모두 1억원을 기부했다. ... 박 위원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실명으로 1억원 이상 기부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회원이 13명밖에 안 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면서 “사회지도층이 1년에 1000명씩은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매년 1억원 이상 기부하는 사회지도층이 100명만 1000명, 1만명으로 늘어 가면 늘어갈수록 이 사회

는 있는 사람은 떳떳하고 없는 사람은 추워 떨지 않는 살 만한 사회가 될 것이다.” 올해 팔순(1939년 12월 11일생)을 맞아 지난날들을 회고하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자원봉사(自願奉仕)활동이다.

지난 1996년 6월에 창립된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어 3년간 근무한 바 있는 필자는 자기희생을 기반으로 ‘나눔’과 ‘성경’의 태도에서 출발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즉, 노력(勞力)봉사, 재능(才能)기부, 재물(財物)기부, 혈액·장기(臟器)·시신(屍身)기증 등이다.

필자는 이 네 가지 영역을 모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력봉사’는 1961년 봄 당시 필자가 회장으로 활동한 파인트리클럽(Pine Tree Club)에서 회원들과 함께 훈공기(보릿고개) 절당농가를 위한 모금운동을 위시하여 경기도 화도면 직동부락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계몽/소득증대사업 등을 했다. ‘재능기부’는 1996년부터 약 3년 동안 사람의 소리방송(VOC)에 출연하여 무료 장에인을 위한 건강상담을 하였으며, 무료 강연(노인대학 등), 청송건강칼럼 무료보급 등을 실시했다. 현재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상임고문, 한국에이치피치언트고문,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봉사하고 있다.

‘재물기부’는 국제연합 아동기금(UNICEF) 근무(1965-1989) 당시에는 TV 및 라디오 출연료, 대하 강사료, 강연료 등을 유니세프 아프리카 어린이들이기 사업에 기부했다. 1980-90년대에는 일년에 100회 정도 방송(KBS, MBC, SBS, EBS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사후 ‘시신기증’은 아내(이행자 前고려대 교수)와 함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解剖學)교실에 시신기증인 유언서와 가족동의서를 1999년 1월 10일에 제출했다. 우리 부부는 연세대학교 회 교인이다.

시신기증인 유언서에는 “질병을 앓는 이웃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나아가 질병 없는 건강한 미래를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나는 훌륭한 의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에 내 몸을 바치고자 합니다. ... 내 한 몸이 우리나라 의학교육과 학술연구에 밑거름이 되어 좋은 의사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의학이 발전하고 국민복지가 향상되는데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다.

한 달에 천만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 흥정방정 과소비하여 1천2백만원을 지출하면 200만원이 적자이지만, 500만원 수입을 가지고 근검절약하면서 400만원만 지출하면 1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세태에는 보다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우리나라 기부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을 솔선수범해야 하겠다.

마약과전쟁(3)

헤로인 중독성 마약이란?

▶가족구성원들은 심대 자녀들이 마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마약사용을 피하고 마약실험을 저지하는 부모나 다른 어른들은 그들의 심대 자녀들이 마약으로부터 절제하도록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역할모델들은 심대들이 모방하고 싶어 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마약사용을 피하고 저지하는 코치, 운동선수, 배우, 그리고 교수들을 역할모델로 존경하는 심대들은 마약을 거절하는데 있어서 많은 유익한 점을 갖고 있다.

▶미디어 메시지들은 마약을 사용하도록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예를 들자면 TV나 디지털 미디어, 영화, 음악으로부터 온 메시지들은 마약이 끼치는 헤로운 영향과는 다르게 오히려 현혹시킬 수 있다.

▶마약사용이 끼치는 건강의 위험

불법마약은 경미하게 심하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 의약품과는 다르게 불법마약에 쓰이는 물질들은 품질, 순도, 혹은 강도를 감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물질들이 끼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가 없다. 실제로 마약남용은 다각도의 건강 상관계(health triangle) 즉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육체적 건강: 마약이 혈류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은 사용자의 뇌, 심장, 폐, 기타 생명의 중요한 기관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마약남용의 심각한 위험은 과다복용은 많은 양의 약을 사용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강한 때로는 치명적인 반응을 말한다. 주사바늘을 통해 주입되는 마약사용은 B형 간염과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질병에 걸리는 위험과 연관되어 있다.

▶정신적 건강: 마약은 이성, 생각하는 기능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잃는다. 옆에 그림과 같이 환각제 엑스타시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바꾼다. 마약을 실험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가치기준을 잃는다. 마약의 영향권에 있는 심대들은 그들이 전에 그들의 행동을 인도해 왔던 긍정적 믿음, 가치관, 이성을 더이상 상하지 못한다.

▶법적 결과

심대의 마약소지, 사용, 제조 혹은 판매는 불법마약 사용(illicit drug use), 즉 불법적이거나 허용되지 않은 어떤 물질의 사용과 판매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떤 주는 마약 위반죄의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는 운전하는 특권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또한 학교로부터 정학, 감옥생활, 혹은 징역유예 등은 유지판결의 결과들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치는 결과

어떤 사람들은 마약과유에 관한 그들의 결정이 그들의 문제이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무관하다고 믿는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 개인이 마약을 남용하기로 선택할 때 그 결정은 그 사용자의 생활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마약과 연관된 심대들은 건전한 활동에 관심을 잃고 마약을 하지 않는 생활양식에 가치를 둔 친구들과는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들은 마약사용의 경고신호를 알아차려야 하고 그 개인에게 전문인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갓난아기들과 아이들에게 미치는 결과

물질남용은 마약사용자들의 태아들, 유아들, 아이들의 성장에 상당한 해로움을 끼칠 수 있다. 마약을 사용하는 임신부는 그 마약의 태반을 통해 그녀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전달된다. 그 아기는 자연유산 되거나 혹은 기형적으로 태어나거나 성격장애, 혹은 중독증상을 갖게 될지 모른다. 만약 부모 중의 하나가 주사로 주입된 마약을 사용한다면 그 아기는 한쪽 부모 혹은 양쪽 부모에 의해 감염된 주사바늘의 공동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게 될지 모른다. 모유를 통해 마약을 사용하는 수유하는 엄마는 이 물질들을 그녀의 아이에게 전달시킨다. 임신 중에 진정제 혹은 다른 마약들을 사용했던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은 육체적으로 마약에 의존하거나 태어날 때 심각한 금단증상을 보이게 될 수 있다.



홍성선 박사  
마약정보학박사  
NGO세계기독교청 설립이사장

2019년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포어 : 중은민남 행복안성도(신 33:29절)
장사 박수영 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귀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류경호 : 만성변비로 가이거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치병 집회중 신로 기도중 고침받음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제병원 매수 수술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순예배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시 동구 송라로 16길 11(신인동)
동대구 반도유보라 상가(2층)

WRTS WORLD REFORM THEOLOGICAL SEMINARY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점영의 졸업장 수여 함.
◆ 과정수료 후 세계로신학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신학교(경기도 양주시 교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학술원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포어 :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 지키고 사랑에 동참하라
2018 포어
성경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당회장 정대성 목사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예배 : 오전 11:00
· 주일 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예배 : 오후 7:30
· 금요침례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은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담당목사 김성룡
상담목사 박영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fc.kr



# 푸른솔교회 창립 20주년기념 허창범 목사 명예박사 영등

## 최윤옥 사모 명예선교학 박사 취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총회장 허창범 목사(지저스타임즈 이사장)는 지난 12월 10일(월) 오후 4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1번안길 47, 푸른솔교회 본당에서 교회창립 20주년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동시에 허창범 목사는 명예철학박사, 최윤옥 사모가 명예선교학박사 학위를 미주칼빈신학대학교 국제총장 정창원 박사로부터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1부 예배에 김미경 목사(호남노회 회계)의 인도로 정순옥 목사(웨신부 총회장)의 기도, 지요한 목사(웨신회 특서기)가 말씀봉독(행 13:1-3)을, 푸른솔교회 남녀합창단의 은혜로운 특송을, 부총회장 박정균 목사(대전 변성교회/본사 부이사장)는 "안디옥 교회의 자산"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정균 목사의 주옥같은 은혜로 다시 들을 수 있다(http://jtntv.kr http://cpj.kr참고).

따라서 임예성 목사(호남노회 증경회장)가 헌금기도를, 담임 허창범 목사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2부 마순덕 목사(호남노회)의 사회로 축하행사가 진행되어 먼저 푸른솔교회 20주년을 간추린 동영상 시청에 이어 허창범 담임목사는 성



아연, 채현주, 허창대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유한주, 함희수, 최현주, 추민서, 이은미, 박인상 등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 미주 칼빈신학대학교 정창원 국제총장은 허창범 목사를 명예철학박사 학위, 최윤옥 사모에게 명예선교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따라서 부총회장 박정균 목사가 허창범 목사에게 축하패를 전달하고, 호남노회장 마순덕 목사가 최윤옥 사모에게 축하패를 전했으며, 윤석희 목사, 김미경 목사가 허창범 박사, 최윤옥 박사에게 꽃다발 및 선물을 증정했다.

따라서 윤석희 목사(호남노회 서기)의 축가, 이영풍 목사(직전총회장)의 격려사, 정종옥 목사(웨신바울신학대학원장), 신연창 목사(연합노회장/글로벌기독교선교교회 회장), 이준영 목사(웨신총회 총무) 등이 축사에 나섰다. 아울러 본교회 안중기 장로가 광고를, 웨신 증경회장 이

흥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허창범 목사의 교회창립 20주년을 돌아보는 懷古談!

먼저 교회와 역사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푸른솔교회가 20년 전 빛고를 광주 남구 용선동 지하 40평에서 개척을 시작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하겠다는 일념에서 오직 기도와 말씀전파에 힘썼으며, 당시 근무지였던 대학에서도 영혼구원의 사역을 다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 3년 만에 100평 교회건물 2층을 건축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옆 건물 1,2층 80평을 임대하여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다.

다시 교회설립 10년 만에 현 수완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총 400여 평의 교회건축을 하여 사역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필리핀 다바오에

3개의 지 교회와 남아공에 1개의 지 교회를 세웠으며, 푸른솔교회는 여러 가지 무어꼭질 속에서도 반석위에 세워져 든든하게 성장하고 있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푸른솔교회 20년 동안 섬기리면서 목회자를 도와 또는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사랑한 교우들, 또는 호남노회원들, 웨신총회 임원들과 총회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했다. 따라서 허창범 목사, 최윤옥 사모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남가주 칼빈신학대학교 정창원 총장에게도 감사했다. 20년간 목회자 가족으로 고통과 어려움 갈등과 상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협력해주고 힘이 되어준 사모와 아들과 며느리와 딸과 사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 목사는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날까지 더욱 사명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다짐이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건강한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리라 확신한다면서 20주년을 축하해주신 동역자들,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로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시길 기원했다.



## 총회장 허창범 목사 교육부문 인물대상 수상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에 허창범 총회장, 정순옥 부총회장 수상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15일(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2018년 한해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긴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주최 측의 기본 취지와 목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복지, 건강,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무월

한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일하면서 국익은 물론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을 발굴하여 각 분야에 걸쳐 시상식을 갖게 되었다.

이날 예장(웨신) 총회장 허창범 목사(JTNTV방송 이사장)는 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무월

한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일하면서 국익은 물론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을 발굴하여 각 분야에 걸쳐 시상식을 갖게 되었다. 이날 예장(웨신) 총회장 허창범 목사(JTNTV방송 이사장)는 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무월

## 예정교회 창립 30주년 새성전 봉헌감사예배 및 임직식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는 지난 12월 25일(화) 성탄절을 맞아 오후 3시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화로 소재에 남양주 예정교회 새성전 봉헌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가졌다. 설동욱 목사 인도로 1부 예배에 정여군 목사(평중노회장, 원당소망교회)는 대하 7:11-18절을 중심 "여호와와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이상준 장로(건축위원장)의 건축경과보고, 박장호 장로(선임장로)의 헌건사, 당회장 설동욱 목사

의 헌건사와 봉헌선언 후 2부 안수집사 임직 7명, 안수집사 1명, 시무권사 31명, 명예안수집사 4명, 명예권사 5명 등 총 48명이 임직되고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3부 축사 권역에서 피종진 목사(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 남서울중앙교회), 장대영 목사(증경노회장, 수도중앙교회), 설동찬(증경총회장, 열매교회)목사가 축사를, 안수집사, 시무권사에게 이성규 목사(증경노회장, 새순교회), 은퇴장로, 명예안수집사, 명예권사에게, 신현필 목사

(증경노회장, 임마누엘교회), 예정교회 교우들에게 이석우(증경노회장, 늘푸른진건교회)목사가 각각 축사와 권면을 했다.

설동욱 목사는 "먼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린다."면서 "새성전 건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한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건축위원들과 성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예정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역 사회에 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 축 2019 謹賀新年 푸른솔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성도여러분 복된 새해 되세요 허창범 목사,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교육부문 대상 수상

##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창범  
신학박사/교육학박사/예장웨신 총회장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전1부8:00  
2부9:00 3부11:00  
주일오후: 오후1:30  
수요일예배: 저녁7:00  
새벽예배: 새벽5:00  
금요철야: 저녁8:00

부 목사: 김미경  
협동목사: 유한주, 양연석  
시무장로: 안중기, 허성준, 함용호  
협동장로: 이창수  
은퇴장로: 공재룡

2020 VISION  
광주에서 전세계로!!  
From Gwang-Ju To all over the world!

2019년도 교회표어:  
평강이 넘치는 교회 (요 20:21)



부설  
비율선교신학연구원(사)한국상담교육발전협의회  
푸른솔합동조형(상담및대안교육전문)/푸른솔노인복지센터



계시록 6장 강해(43)

# 넷째 생물의 역사 '날아가는 독수리'

## 너희 하늘들과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예장진리총회 총회장



(지난호에 이어서)

7월 이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섯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입니다.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 '오라'는 곳은 사사기 6장의 큰 용사 기드온이 밀을 포도즙 틀로 타작하는 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왜 기드온이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하나요? 그가 미디안의 군대를 무서워해서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비겁한 사람은 아닙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압록이 아닌 죽정이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정이가 되지 않고 압록 되게 하기 위하여 미디안 군대로 이스라엘을 7년 간 짓밟게 하시는 역사임을 기드온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밀을 밭 타작기가 아닌 포도즙 틀로 타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세상에 속한 것들로 바뀔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죽정이 되어가는 교회들을 죽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나요? 7년 환란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넷째 생물이 오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밀을 포도즙 틀에 타작하는 큰 용사 기드온과 같은 깨달음을 가진 자가 되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들이 받을 하늘의 영광에 비례하여 따르는 훈련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넷째 생물의 역사입니다. '날아가는 독수리'에서 계시하듯이 우리를 더 힘 있게, 더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자로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나요? 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새끼 독수리보다 더 빠른 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바다 수면에 닿기 직전까지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자신의 날개로 받아서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 높은 곳에서 또 다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킵니다. 거친 고공 훈련이 거듭되면서 생사를 초월하는 훈련을 끝낸 비로소 새끼 독수리가 새의 왕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훈련과 연단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이 힘 있게 날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7년 환란의 넷째 봉인을 개량하여 환란과 고통의 강도를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의 역사로 더 크게 찬송하면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역사입니다. 8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랑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굵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사분의 일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창백한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랑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한 것에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에서 '지옥'은 헬라어 원문은 음부(헬: 하데스)로 기록되었기에 '음부'로 정정합니다. 창백하다는 것은 명든 색, 시체 색과 같은 창백색입니다. 창백한 말 탄 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패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왜 두드려 찢을까요? 예수를 부인 하고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하려고 동공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또 짐승표 666을 받게 하여 적그리스도의 속속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영적생명을 죽이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넷째 생물의 살리는 역사를 깨닫고 있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동공으로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더욱 화가 나서 더 세계 고통을 주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백한 말 탄자의 이름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죽임 당하는 자는 육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게 되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넷째 생물로 이기게 하여 금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니.'는 것은 창백한 말 탄 자가 교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줄 때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배도하여 육신은 살지만 영적으로는 음부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제림하실 때 곧장 음부로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린양이 넷째 봉인을 여섯 때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8절 중반에 "그들에게 칼과 굵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사분의 일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입니다. 앞의 구절이 헬라어 원문과 다르게 번역되어서 대명사 "그들에게"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본문을 헬라어 원문대로 다시 번역해 보면 "칼 안에서, 굵주림 안에서, 사망 안에서, 땅의 짐승들로 말미암아 땅의 사분의 일을 죽일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더라."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칼·굵주림·사망'은 죽이는 방법을 말한 것이고, 죽이는 자는 땅의 1/4을 죽이는 권세를 받은 땅의 짐승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짐승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땅의 짐승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계 13:1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한 인격체인 적그리스도요, 계 13:11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한 인격체인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의 1/4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 땅의 짐승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땅의 1/4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땅'은 육적 신자를 가리킵니다. 계시록에서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했고, 이미 순교한 자는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 하늘들과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반 하늘과 땅, 바다는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말한 것입니다(계 12:12). 육적 신자들 1/4이 순식간에 그들의 영적생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분의 일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초반적인 것입니다. 땅의 짐승들이 어떤 방법으로 죽인다? 땅과 바다는 화 있으리라, 굵주림 안에서, 사망 안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칼 안에서 죽음 -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칼입니다. 환란 날에 분별 못하는 신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멘으로 받아서 그들의 영적생명이 죽는 것을 말씀합니다. 롬에 5:9에 광야에 칼이 있어서 죽음을 다해서 간신히 말씀을 받아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광야교회를 지시합니다. 교회 안에 칼이 있다는 것은 죽이는 말씀의 칼이지요. 환란 날에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영향 아래 있어서 영혼을 죽이는 말씀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죽이는 말씀을 안 듣고 내 영을 살리는 재림 주님에 관한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 환란 날을 견디기가 죽음을 다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환란이 되기 전인 오늘날도 교회 안에 죽이는 칼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의 복·부귀영화를 보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혼을 죽이는 칼입니다.

굵주림(기근) 안에서 죽음 - 영적 기근으로 죽는 것을 말씀합니다. 환란 날에 열매 없는 죽은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이 영적 굵주림(기근)입니다. 환란 날에는 지금과 같은 조식교회가 없습니다. 환란 되기 전에 미리 우리의 심령창고에 말씀을 채워 놓지 않으면 환란 날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환란의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모든 식량까지 통제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공급 받기를 원하나 말씀이 없어서 육적 신자들은 영적 굵주림으로 급격한 영적 타락이 있게 됩니다. (다음호에 계속)

### III성막 영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27)

# 성전의 기능은 성막의 다섯 단계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지난호에 이어서)  
2. 성전의 기능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볼 때 진정한 성전은 교회의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는 성도 자신이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이나 교회 빌딩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하는 데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며, 그 기능들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

성전의 기능은 성막의 다섯 단계를 말하는데 첫째, 회막문 단계, 둘째, 성막틀 단계, 셋째, 반제단 단계, 넷째, 물두멍 단계, 마지막이 성막단계이다. 그러면 이 기능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요 4:24), 위의 두 구절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이 성막되고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여져서, 거짓과 죄가 없는 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 진정(眞正, True)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과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神靈, Spirit of the Lord)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실현될 때 성전의 기능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롬 8:26-27)

### 3. 믿음의 은혜와 구원의 5단계

1) 단계(회막문) -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겔 47:1),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성전의 재건이다. 이 성전은 구약의 성막을 본떠 지은 것으로 여기서 성전문은 회막문을 가리킨다. 회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문에 들어서면 은혜의 물이 흐르기 시작한 다. 이 은혜의 물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결심하는 순간 일어나는 은혜를 말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7-9절에서는 자신이 구원을 얻게 하는 '양'의 문'이요,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다. 이 문을 들어서면 순간순간 단계에 도달했을 때마다 회복되고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여져서, 거짓과 죄가 없는 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 진정(眞正, True)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과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神靈, Spirit of the Lord)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실현될 때 성전의 기능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 2) 2단계(성막틀) - 발목까지 물이 찼다(겔 47:3).

이것은 두 번째 단계인데 은혜의 물결이 발목까지 찼다고 한다. 이는 이제 은혜의 맛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단계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처음부터 관찰 쏟아져 차오르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그것을 느끼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할 때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지금 이곳은 '성막틀'인 두 번째 단계인데 이곳에서는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잘못 살아온 것을 회회하며 회개하는 단계이다. 또한 죄는 사랑을 가져오므로 내가 죽어야 하지만, 대신 내가 가지고 온 흙 없는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회개제물을 나 자신이 죽어야 하는 단계이다. 회개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 죄인들은 죄 없고 흙 없는 어린양을 죽인 죄책감 때

문에 죄에 대한 후회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뒤범벅이 되어, 깊은 통회자복이 이루어지며 마음이 후련해진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시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물결이 흘러오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신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얕은 단계로서, 꼭 떠나구처럼 찬방지옥으로 향방을 모른 채 그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이다. 이는 인제 세상 속으로 뛰쳐나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믿음의 단계이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떠나구 새끼 같으니라'(욘 1:12) 하나님은 회막(교회) 안에서만 노는 성도들에게 '내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다. '너희 소들의 관원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 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방채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는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위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곧 비하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선함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사 1:10-1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다음호에 계속)

### 2019년 謹賀新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 6:34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담임 이규필 목사 (영신대학 이사장)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전영희 목사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6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담임 조영만 목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핸드폰 010-5355-2584  
다름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담임 서동기 목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7번지(현대아파트A상가)2층 H·P 010-3342-7302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강대일 목사 (영신대학 총회장)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임상국 목사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이재석 목사

경기도 시흥시 범내장터로4, 3층(신천동)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고성규 목사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담임 장승현 목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불학로 62-5(불교리 55-6)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십자가정기도 오후 9:00(365일)

담임 사금림 목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담임 장한국 목사 (영신대학 총회장)

경기도 의정부시 계원대학로10, 701호(내선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서하나님의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오후 8:00  
금요 기도회 오후 9:00  
2시 기도회(메일/월-토) 오후 2:00

담임 이정민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 목양칼럼 24

#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JTNTV운영이사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단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0-24).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함께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후 1: 8-9).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단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0-24).

죄와의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고 자신이 스스로 싸워 이기고자 하는 전쟁입니다. 구원의 노정에서 보면 참 만 족이 없고 소극적인 관여생활과도 같습니다. 둘째는 악한 열과의 싸움이며 주님이 이미 이기심을 믿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구원의 노정에서 보면 참 만 족과 중요요의 적극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엡 6:12).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 피를 흘리는 독립군과 광야생활을 했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해방군과 축복의 가나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버리고자 했던 죄악들이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꿈틀거리므로 언제 튀어져 나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더 이

상 자신의 피(홍의 생명)를 의지하여 싸우는 독립군의 영광을 버리고 주님께 항복하여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싸우시는 해방군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를 얻고자 하심입니다.

“산송하리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3-6).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허락해 주시므로써(물론 우리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처하는 일들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어린이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적인 장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독약을 대해 충분한 설명과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으로 인해 불순종하여 독약을 먹어서 하는 자녀를 보는 순간 어떤 행동을 나오겠습니까? 깜짝 놀라 독약을 빼앗으려 하

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만드시고자 한다면 독약을 먹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때 독약을 먹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며 불순종한 자신과 그 결과를 원망하며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겠다는 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자녀가 죽었을 때 죽은 자녀를 살려준다면 살아난 자녀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참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자 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자 할 때, 우리가 범죄하고자 할 때 막지 않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실족했을 때, 하나님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 우리가 충분한 고통을 느끼며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독생자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이 강권하므로 악을 버리고 선을,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어두움을 버리고 빛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აღ드리지나니라”(잠 24: 16)고 우리가 완전한 넘어짐을 당하여 자신이 죽은 자 같음과 죄인 중에 죄수임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심으로써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참 자녀를 얻으십니다. 완전수인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범죄해 넘어졌을 때, 환난과 시험을 통해 충분히 받으셔서 근본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행하시는 아버지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사 119:67).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사 119:71).

# 순교, 그 영광스런 발자취를 따르며

얼마 전 한국교회 연합회 신사참배 80년을 보내며 일천만기도대성회를 열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영적대각성을 가지는 것은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은 신사참배라는 민족적 죄를 회개기도를 하고 순교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하고 결단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여신(女神) 숭배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이 침략에 나서며 일왕을 신(神)으로 삼아 숭배하게 된다. 그래서 한일병합을 자국의 신문에 한복입은 조선인 일본의 여신에게 절하는 그림을 묘사하며 대대적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1920년부터 일제는 건국신과 메이지신을 모시는 겸성 남산에 신사 신궁을 건립,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신사참배’와 창시개명한 기부자들의 명부를 돌계단으로 만들어 ‘천일’과 ‘신사참배’를 영웅시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어찌보면 신사참배의 역사는 식민통치와 궤를 같이 한다. 일제강점기 자행된 신사참배는 민족적으로 창씨개명, 황국신민서사와 동방요배, 우미유카바를 부르며 ‘국민의례’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의 일기장에는 매일 검열받는 일들이 계속되었다. 길게 생각하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신사참배 강요는 1937년까지 학교에 대해서는 강경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는 강요할 생각이 총독부에는 없었다. 이는 교회 세력이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7년부터 종파에 따라 쉽게 따르며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명예의 보존에 연연하여 천일에 영합하는 지파 신교사들이 세운 사립학교에 대한 폐교와 물수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만약 이때, 한국교회가 학교와 각 교파들이 연합하여 ‘일사각오’로 신사참배대응을 ‘동’을 전개했다면 이렇게 쉽게 굴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신사참배에 대해 마치못해 용인하거나 도피하는 도피형과 타협을 하고 수용하는 타협형과 순교를 각오로 적극 불참하는 항거형 등 세가지로 이상규 박사는 분류했다.

타협형은 일제와 타협하여 교회를 지키고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사참배는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례문제로 이해했다. 천주교와 감리교가 먼저 신사참배를 종교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했고, 장로교도 대부분 수용하였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일부밖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교회나 성도들이 일제와 타협하고 말았다.

당시 일제의 탄압에 200여 교회가 문을 닫고 2,000여 성도가 투옥되었고 50여명의 교역자들이 순교당했다고 총신대 박용규 교수는 밝히고 있다. 이 숫자는 당시 장로교의 3,000개 교회 35만 성도의 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일부밖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타협의 길로 들어섰고 말았다. 이런 행동이 교회의 부흥이나 복음 전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환멸을 느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가하면 도피형도 있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것이 불법인 줄 알지만 육신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치 못해 동참하는 척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가하면 투쟁하는 것을 포기하고 공직에서 물러나 초야에 묻혀 개인의 신앙을 지켜 나가려는 이들도 있었고 아예 화업을 이유로 해외로 나가려는 이들도 있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뜻있는 인사들은 지하로 숨어 한때 7만여 개신교인이 그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하였다고 역사학자 김인수 박사는 전한다. 한국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해외로 떠나므로 다른 대안이 없는데 일부러 죽음을 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중 신학자 박윤선 박사도 있었다. 이런 도피형 가운데는 농촌으로 내려가 농촌운동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김용기 장로로 그의 농촌운동은 의식계몽운동이자 또 다른 민족운동이었다.

그러나가하면 순교의 발자취를 남긴 항거형 순교자들이 있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최소 30여명 정도가 옥중에서 순교했거나 출옥 후 고문이나 병약함으로 순교한 최봉서 목사 같은 이들도 있었다.

신사참배 거부 항거자를 교파별, 지역별로 조사하여 펴낸 김승태 박사에 따르면, 평북에 고흥봉 목사를 위시해서 2명, 평남에 김선두 목사를 위시해서 2명, 황해에 박경구 목사를 위시해서 10명, 함북에 김무생 목사, 경남에 한상동 목사를 위시해서 31명, 경북에 이원영 목사를 위시해서 20명, 충북에 송영희 목사를 위시해서 2명, 전북에 김가전 목사를 위시해서 5명, 전남에 강승명 목사를 위시해서 46명, 만주에 계성수 목사를 위시해서 26명, 일본에 김은석 목사를 위시해서 8명이라고 했다.

그리고 감리교 강종근 목사를 위시해서 9명, 성결교 김기삼 목사를 위시해서 11명, 동양기독교 김영관 목사를 위시해서 12명, 안식교 최태현 목사 1명으로 총 229명이라고 한다. 이중 옥중에서 죽은 풀려나서 순



이효상 목사  
한국교회강연연구원장

교한 사람이 29명이며, 그중 장로교에 속한 사람이 18명이고 기타가 11명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신사참배 반대로 항거하다 실행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감옥에서 순교로 영광스런 발자취를 남긴 장로교 목사는 이기풍 목사, 주기철 목사, 최상림 목사, 허성도 목사, 박연세 목사, 양용근 목사 등 6명이며, 장로에는 박관준 장로가 있었다. 그들은 분열 거짓과 불의한 사회와 변절한 교회에 대하여 온 몸으로 경고한 예언자적인 신앙의 용장들이었다.

어떻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이런 선배들의 숭고한 순교정신을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한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터틀리안의 말처럼, 1866년 9월 5일 영국의 토머스 선교사가 북한 평양의 대동강 변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이래 2,600여 명이 뒤를 이어 숭고한 삶을 살았다.

한국교회와 사회의 발전 뒤에는 이처럼 신앙 선조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 신사참배를 둘러싼 한국교회의 ‘변절’과 ‘순교’의 의미를 오늘에 다시 짚어보고, 그들의 감당했던 신앙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순교신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재조명하는 일은 건강한 한국교회의 영성과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민족적 죄를 회개하고 순교정신을 다시 회복하려 한 것이나, 이번 일을 계기로 감리교가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고 회개대열에 앞장섰다는 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강종근 목사와 양용근 목사와 주기철 목사를 기억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담아 순교자 추서패를 전달한 것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하겠다.

## 謹賀新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교회**

주일예배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親務牧師 서명범 同事牧師 지복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담임 김선우 목사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48-161  
H.P 010-3499-2441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제일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말 오후 7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담임 오종철 목사

충남 홍성군 흥성을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담임 배영자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담임 박완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010-4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벨엘중앙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능력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 11시  
주일오후 7시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 오전 5시30

담임 최순란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77 지하 1층(안양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특별관심-1급 ~3급자 환영)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낙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주일예배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홍형표 목사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010-7585-1955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침송교도소  
침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속(직업훈련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 새한기보협, 제15회 신학세미나 2018년 종강

## 제1강 예영수 목사 “영계의 이중 연계성” 제2강 김성기 교수 “교회 음악”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이하 한기보협)는 지난 12월 11일(화)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14층 2강 의실에서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주제로 제15회 신학세미나를 개최했다.

신학세미나에 앞서 1부 백장준 목사(예장합동전통)의 인도로 김성립 목사(예장제자총회)의 기도, 김미선 목사(문화예술위원회)의 성경봉독(출 37:1-9)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찬양단의 특송에 이어 한치호 목사(새일꾼 선교회 총회장)는 “지명하여 부르시디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따라서 김경아 교수의 헌금송과 박국목 목사(예장회현총회)의 헌금기도,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가 있었

다. 따라서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광고에 이어 임준제 목사(예장개혁합동 총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오후 2부 세미나는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진행으로 호헌총회 오동환 목사의 기도예에 이어 제1강은 예영수 목사(예장제자총회)의 기도, 김미선 목사(문화예술위원회)의 성경봉독(출 37:1-9)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찬양단의 특송에 이어 한치호 목사(새일꾼 선교회 총회장)는 “지명하여 부르시디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따라서 김경아 교수의 헌금송과 박국목 목사(예장회현총회)의 헌금기도,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가 있었

는 이들을 부르고 있으며, 넷째: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열 3:19“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하기를 기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에 박힌 모든 가시들을 다 빼주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라고 전했다.

이어 제2강은 예복총회 김성기 교수가 교회 음악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강의했으며,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를 끝으로 조성근 목사의 축도로 2018년도 신학세미나를 마무리했다.

# 서울남부구치소, 시네마 천국으로

##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 행사 실시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신용해)는 2018. 12. 14(금) 영화감상을 통해 수용생활 동안 사회와 격리된 단절감을 해소하고, 수용자들의 심적 안정과 정서 순화를 도모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 행사를 시행했다.

CBS와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이 공동 추진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는 영화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마련된 행사로써 영화 상영에 공헌한 행사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소감문 공모에 당선된 수용자에게 상장과 상품을 지급하였다.



개그맨 강인규씨의 진행과 방송인 정애숙씨의 공감토크로 진행된 영화의 감동을 이어갔고, 공감토크 중 한 수용자는 “영화 속 한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에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신용해 서울남부구치소장은 “문화 공연에 소외될 수 있는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남현교회 설립 37주년 기념, 임직식 가져

## 70명의 임직, 장로장립 4명, 장로취임 1명, 집사장립 20명, 권사 45명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황동노회 소속 남현교회(담임목사 이춘복)는 지난 12월 1일(토) 오후 2시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소재 본당에서 담임 이춘복 목사 인도로 교회 설립 37주년 기념 임직감사에예배를 드렸다.

1부 37주년 기념 감사예배에 장로 부노회장(동서울소망교회 안상일) 장로의 기도, 남현교회 찬양대의 찬양, 사절장/열린사랑교회 이용재 목사가 성경봉독(살전 1:1-10), 노회장 강영철 목사(구리성전교회)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2부 임직식에서 담임 이춘복 목사는 임직자를 호명하여 기쁨게 하고 임직자들과 교인들을 향해 서약을 갖고 이춘복 목사의 안수기도로 안수위원들은 장로 5명과 안수집사 20명에게 안수하고, 악수례를 가졌으며, 이어 이 목사는 권사취임기도, 장로취임기도, 집사취임기도 권사취임기도를 한 후 임직자들을 호명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했다. 이어 임직받은 신임 장로들에게 선배장로들의 성의적의식을 하며 축하했다.

이어 증경노회장 김승관 목사(성당 제일교회 원로)가 장로들에게, 증경노회장 홍재영 목사(예만교회)는 집사들에게, 증경노회장 한희철 목사(상도동신교회)가 권사들에게, 이의권 목사(갈릴증양교회)가 교우들에게 각각 권면했다.

3부 축하의 자리에서 이춘복 목사

한 헌신으로 교회 내에 베드민턴장, 농구장, 포켓볼장, 탁구장, 배구장, 족구장 등 많은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 외에도 뮤지컬체육시설은 물론 결혼예식장 등을 시설하고 본 교인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교회로 누구든지 가보고 싶다는 교회로 소문나 있다.

한편 남현교회 담임 이춘복 목사는 이번 설립 37주년을 기념하여 임직식을 갖고 70명의 임직자들은 7급반계 교회설립을 위하여 건축헌금을 당회 증정이 있었다. 이어 증경노회장 김승관 목사(나눔의교회), 노회서기 송영환 목사(김포남현교회)가 축사를, 이 권공 장로가 답사를, 남현교회 색소폰 선교단의 축하연주가 있던 후 이춘복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증경노회장 김영길 목사(봉성교회 원로)의 축도로 남현교회 설립 37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를 성은가운데 마쳤다.

이날 교회설립 37주년을 맞은 남현교회 이춘복 담임목사는 1981년 11월 29일 교회설립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1일 현재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남현교회 대형교회로 부흥성장하기까지 그 비결은 담임 이춘복 목사의 열정적인 기도와 사랑이었으며, 또한 교회 성장의 비결은 전교인 사역팀을 구성 훈련에 있었고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봉사하고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는 기도와 전도훈련에 힘입어 오늘의 남현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다. 게다가 이춘복 목사는 지역사회에 안배를 위

# 서동기 목사, 소망교회 설립예배 드려

##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게

예장합동보수 한동노회(노회장 김국태 목사)는 지난 12월 3일(월) 오전 11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현대아파트 아파트상가 2층에 소망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서기 김관호 목사의 인도로 설립감사에예배를 시작하여 증경노회장 조영만 목사가 기도를, 부노회장 한기장 목사가 성경(살전 1:1-10)을 봉독하고 노회장 김국태 목사는 “소문이 풍겨 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증경노회장 임원택 목사가 헌금기도를, 노회장 김국태 목사는 소망교회가 설립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증경노회장 이세중 목사, 총회장 강대



일 목사가 축사했다. 또한 서하이, 서영하 학생의 바이올린, 플룻연주로 특송을 가졌으며, 소망교회 서동기 목사의 인사 및 광고한 후 증경총회장 이규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서동기 목사는 소망교회를 설립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설립예배에 참여한 노회 동역자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인사했다. 서 목사는 또 소망교회를 통

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증거를 위하여 이웃을 시작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데 있다며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면서 소망교회를 설립하게 된 소신을 밝혔다.

**피종진 목사 초청 1월 국내·외 부흥성회**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FAX: (02)3411-9111

피종진 목사

1(화)~ 2(수) 성남 제자교회(남보석 목사) ☎ 010-7220-0733  
2(수) 오전 일산 순복음영산교회(강영선 목사) ☎ (031)901-0191  
3(목) 저녁 세종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 (041)852-2211  
4(금) 오전 국민비전부흥사협의회 신년하례(대표회장 고종진 목사) ☎ 010-3899-0691 장소: 국민일보빌딩 12층  
6(주) 오후 김포 감림교회(조경숙 목사) ☎ 010-8222-1992  
6(주) 저녁 부천 우리공동체교회 연합성회(대표회장 양유식 목사) ☎ 010-8839-8899  
7(월) 오전 천안 참아름다운교회(안병찬 목사) ☎ 010-5398-1038  
7(월)~ 9(수) 아산 설화산기도원(노베드로 목사) ☎ (041)531-0690  
10(목) 오전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 연합 신년하례 장소: 연세백안누리 그랜드볼룸  
10(목) 오후 서울신학교(학장 김준환 목사) ☎ (02)885-9500  
12(토) 오전 기독교부흥운동협의회(대표회장 김수봉 목사) 장소: 육천 행복한전원교회(이광열 목사) ☎ 010-5307-9191  
13(주)~16(수) 수원 사랑의교회(안 혁 목사) ☎ 010-5503-0826  
14(월) 오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이종인 목사, 대표회장 정명희 목사) 장소: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02)741-4370  
17(목) 오후 대전신학대학교(총장 김영권) ☎ (042)606-0114 주최: 통일총회 부흥전도단 부흥사역수원(대표회장 강정원 목사)  
19(토) 오전 국회헌정기념관 국민의회 기도회 ☎ 010-2508-3344  
21(월)~22(화) 평행 강남금식기도원(원장 김성광 목사) ☎ (031)584-1001  
23(수)~25(금) 김천 한광순복음교회(안 혁 목사) ☎ 010-5503-0826  
28(월) 오전 천안 은혜교회(강홍규 목사) ☎ (041)573-9344  
28(월)~30(수) 순천 별빛은교회(강신환 목사) ☎ 010-8606-0691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번성교회**

2019번성표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행9:31)  
번성목표 :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예/배/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 수요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부흥집회 저녁 7:30 | 새 벽 기도회 새벽 5:00

담임목사 : 박 정 균  
Rev.(D.Min): Park Jeong Kyun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34(갈마동 338-22) ☎교회: 042) 523-3191 FAX:523-3090 E-mail:pjk2863@hanmail.net



제2장 사도영성운동의성경적기초(27)

### 교회성장을 위한 세가지 영성훈련!

(지남호 이어서)

이 세 가지 영성훈련의 방법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교회성장을 위한 영성훈련을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의 영성훈련을 다 실행해야 하며, 병행해서 사용해야 한다. 즉, 집중수련 과정 중에 강의중심훈련을 한 다음 소그룹으로 실습중심 훈련을 통해 나눔을 가지고 공동으로 생활하는 동안 실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이 외에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영성수련을 하도록 과제를 주고 만나서 이를 확인해 가는 방식의 수련이 있다. 이 훈련방식은 흔히 소그룹의 실습중심훈련 시간 중에 이루어지거나 소그룹과 연관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영성훈련 방법을 통해 훈련되어야 할 영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개인훈련(개별훈련)이다. 영성은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대화하는 훈련이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둘째, 관계성 훈련이다. 개인훈련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것

은 이웃과의 관계이다. 개인훈련은 관계성 훈련을 통해서 검증되고 구체화되고 깊어진다. 셋째, 교회 공동체훈련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라는 지체들이 연합된 한 몸이 영성훈련을 받는 것이다. 공동체는 나름대로 독특한 영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 영성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편 영성훈련의 주요 내용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이다.

다음은 영성훈련을 위한 주요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들이다.

1) 거듭남과 성령 : 요한복음서는 독특한 표현들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그 중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이 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다음의 짧은 글로 요약하여 말하였다. "여기에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신들로 믿게 하고 또 믿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임

니다"(요 20:31)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이란 것이다. 요한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라는 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가 되다시피 하는 같은 말이다. 요한은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이 생명을 누리다'는 것이 혹시나 요한에게 있어서 성령체현과 영성생활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요 6:63)"내가(예수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 다"(요 6:63) 요한은 예수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하면서 영과 생명을 밀접하게 연결 짓는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요한은 말하고 있다. 그것은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때문인 것이며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영)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요 3:34)이라고 한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홍향표(요한)목사  
사도영성신학 학장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요 4:14). '그가 주시는 물은 마시는 그 사람의 속에서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곧 이어서 요한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요 4:23)는 말을 하고 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과 관련하여 요한은 말하면서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갈증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요 7:38-39)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명'과 '성령'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본다. 이와는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목숨이나 생명'을 가리킬 때

에도 '영'이라는 표현을 썼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데 원문에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서만 '영(프뉴마)을 거두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 19:30) '목숨'을 '프뉴마'(영)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요한이 말하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성령'이나 '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을 갖는다'는 말은 '영성생활의 목적에 도달한다'는 말이기도 하며, '생명을 누리다'는 말이 곧 '영성생활'을 의미하는 것 같이 보인다.

'생명과 성령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은 거듭나는 생활에 관한 니고데모와 예수와의 대화 가운데 잘 나타난다. 요한에게 있어서 생명은 '거듭나는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거듭남의 목표가 생명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거듭남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3-5)

여기서 '본다'는 말은 '경험한다. 맛본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관복음서의 전승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같은 전승의 배경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율법학자와의 대화도 공관복음서에 나타난다. 마가에 따르면 어떤 율법학자가 가장 큰 계명에 관해서 예수께 물었다(막 12:28-34; 마 22:34-40; 눅 10:25-28).

마가에 따르면 그때 예수께서는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막 12:34) 공관복음서에서 니고데모와 같은 율법학자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불음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지만 누가의 보도에 따르면 율법학자는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여블타작마당 5 |

### 최악의 잠에 취하지 말라!

(지남호 이어서)

성경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고 비유하셨다. 그리고 목회자도 작은 농부라고 했다. 옛날 구약에 제사장들도 농부로 비유된다. 그리고 농부는 곡식단을 허리춤까지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그다음에 도리끼질을 해서, 곡식을 털어낸다. 곡식을 타작할 때에 알곡은 매를 맞은 다음에 쏟아지고, 썩정이는 타작기에 맞아서 부서지고 잘려져서 바람에 날려간다.

여러분! 알곡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알곡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다. 세례요한의 경우를 보면 마 3:8-12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고 썩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셨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여름 타작마당을 가리킨다.

계 14:14-20에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교훈하시기를 주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니엘은 예수님의 제림과 한 돌의 심판을 가리켜 여름 타작마당으로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 성경(타작마당)을 종말론으로 풀어진다. 창세기로부터 전 성경에서 여름이란, 심판이 다 되었음을 말하고, 또한 타작마당을 말할 때는 무조건 끝나는 시간으로 보면 된다.

#### 1. 여름의 특징 일곱가지.

1) 여름의 특징은 잎이 무성하다.  
여름을 만난 나무는 그 잎이 푸르고 풍성하다. 그 때를 말한다. 여름에는 나무의 원줄기보다. 또는 가지보다. 더 무성한 것이 잎이다. 가지와 잎이 무성하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만 더 무성했다. 마지막 말세에는 생명의 근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적인 잎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사람의 내적인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그 보이는 외적 형식은 소용이 없다. 보이는 외적 형식이란, 정치, 경제, 과학, 예술, 문화, 문명 등. 이러한 것들은 소용이 없다. 인간의 외적인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날이 온다. 타작마당에는 그러한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대 문화, 헬라의 대 문화, 바빌론의 대 문화는 한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살나고야 만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는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끝장이 나고 만다. 그래서 잎은 열매 맺기까지만 필요하다. 열매 맺기까지만 잠시 사랑을 받는다. 열매 맺은 후에는 잎이 소용이 없다. 잎은 오직 열매 맺기까지만 사랑을 받는다.

2) 여름의 특징은 '잡초가 무성한 때이다.'

하필이면 왜 여름에만 잡초가 무성할까요? 다시 말하면 왜 말세에 잡초가 많을까요? 왜 여름만 되면 잡초가 많다.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단집단의 잡초가 많다. 왜 이렇게 끝지 않은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가? 그런 얘기이다. 바로 이러한 잡초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다.

잡초는 그 누구도 길러주는 자도 없다. 비료를 주는 자도 없다. 그 잡초를 가꾸어 주는 자도 없다. 말씀을 주는 자도 없는데 잡초들은 잘도 자라고 자기들끼리 잘도 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모여서 잎만 무성한 일들을 한다. 이것이 잡초의 특징이다. 곡식보다 더 잘 성장한다. 곡식은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잘 가꾸어주지 않으면 자라지 못한다. 곡식은 잘 가꾸어 주어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 성장도 못하고 형편없이 되고 만다.

지금껏 올 2장에서 말씀을 간추려서 거듭 말씀드린다면 오늘이 시대가 첫 번째 '어두운 흑암에 쌓였다'랄지라도 하나님의 경하신 역사와 권세로 흑암의 기한이 지나고 나면, 이제 광명한 새 아침의 빛이 밝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괴롭고 삶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걸고 이 어둠과 답답한 새벽을 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갖자. 이러한 신자들에게 반드시 광명한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 "창조의 법칙으로 볼지라도 6일 동안 창조의 역사가 끝나고 제 7일 안식세계가 찬란한 빛과 같이 온다는 약속이 있다. 6일 창조의 역사, 6천년의 역사, 제 7일 7천년 때에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왜 잊지 말라고 했을까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위해서도 언급하였듯이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잊지 않기로 읽어내려 가면 쉽게 풀리는데 6일이 나오면 아- 이는 6천년이구나! 또한 7일이 나오면 아- 7천년이구나!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6천년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외경 바나바 서신에서 바나바는 자신 있게 6천년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어거스틴도 이레네오스도 6천년의 역사를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여기 6자를 풀어보면 흥미롭다. 성경에는 6, 60, 600, 6000년 등이 나와 있다. 그리고 성약을 6일 동안 들고 7일 만에 무너졌으며, 예수님은 옛세 후에 변화산의 얘기를 하셨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들이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이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 의인 50인이 있다 해도 이 소돔성을 멸하시렵니까? 아니다 멸하지 아니하리랴! 그렇다면 45인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멸하지 아니하리랴! 또한 40인은? 멸하지 아니하리랴! 이렇게 여섯 번이나 묻고 나서 아브라함은 코가 납작해져서 사라진다. 여기 하나님과 여섯 번 대화하고 소돔과 고모라성이 무너진 다.

(다음호에 계속) 정기남 목사  
편집인



##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 지저스타임즈 신문 애독자 여러분께

본지는 구독료 및 광고료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도 부흥과 발전,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전 직원일동이 기도드립니다. 신문은 애독자님들의 구독료 및 선교비, 광고료 또는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는 올 10월이면 창간 13주년을 맞이합니다. 본지는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국내외로 복음과 교회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http://www.jtntv.kr> & <http://www.cpi.kr> 두 곳에서 jtntv로 또는 cpi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교계소식과 각 교회의 주일예배 설교를 영상을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소망합니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 07837(신문윤리감령 및 그 실천요강을 실천합니다.)

### 지저스타임즈 대표 정기남 목사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310029-02-152769 정기남

1년 구독료 50,000원, 신문 방송을 후원하실 분은 1구좌 1만원부터~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주소와 전화 번호를 본사 대표 010-5468-6574(정기남 목사)로 문자주시면 신문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용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ntpress@hanmail.net / jtntvcpi@naver.com





# 대광교회 엄영수 목사 원로목사 추대

## 한 자리에서 34년간 헌신을 다한 목회자, 노년을 고향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는 지난 12월 9일(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34년의 긴 세월을 주님과 함께하며 목양일년에 진액을 쏟기까지 헌신을 다해온 엄영수 목사는 이제 정들었던 성도들... 말씀을 전하던 강단을 뒤로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를 받았으며, 대광교회는 이병수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담임 이병수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이영만 목사(주알라기교회)가 기도, 담임 이병수가 성경봉독(딤후 4:6-8), 대광교회 연합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이어 노회장 정병주 목사(선한목자교회)는 "선한 싸움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임창호 장로(대광교회 당회 서기)는 엄영수 목사를 소개하고, 본 교회의 원로목사로 섬기다며 추대사

를 낭독하고, 노회장 정병주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알고 평생 대광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충성할 것을 서약하고, 또한 교우들에게도 존대한다는 서약하고 위와 같이 이행 것을 성삼위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이어 당회장 이병수 목사는 엄영수 원로목사에 추대패를 증정하고, 노회장 정병주 목사는 원로목사 축하패를 증정했으며, 따라서 교회가 원로목사에게 화환 및 선물을 증정하는 등 원로목사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가운데 34년의 대광교회의 발자취의 영성을 시청했다.

아울러 이경구 목사(해성교회 원로)의 축사, 대광교회의 원하던 집사(살통찬양대 지휘자), 마하나임찬양

단, 영·유아부의 축가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엄영수 원로목사가 답사에 나섰다.

엄영수 원로목사의 답사의 내용은 대광교회에서 담임목사로 34년의 세월이 짧게걸이 흘러갔습니다. 20대 초반 전도사가 되어 네티어를 매고 사역에 힘써온 가운데 33세가 되던 해 대광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1974년부터 계산하면 4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던 때 자연인 엄영수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무거운 직책의 무게를 입고 목사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연인 엄영수는 때로는 울고 싶었고 때로는 소리치고 싶었고 때로는 욕심도 났고 때로는 미운이들도 있었고...

그러나 나는 목사는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울었고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이제 무거운 직책의 무게를 벗으려 합니다. (아직 원로목사라는 직책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연인에 가까운 삶을 살려합니다. 하지만 몇 달 목회를 쉬면서 경험해 보니, 너무 오랫동안 그 목사라는 무게를 입고 있었는지 벗었는데도, 자연인 엄영수도 이전 목사의 무게를 입었을 때의 모습으로 변해 있네요...

옛 자연인의 모습이 없어졌어요 그 그러나 이전 의식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더 목사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며 답사했다. 이는 엄영수 원로목사의 45년의 목회 발자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회고담이라 하겠다.

따라서 대광교회 이광일 장로(추대식 준비위원장)의 광고 및 인사에 이어 강윤구 목사(산본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 한국교회 공동기도제목으로 거교회적인 기도운동 전개기로

## 한기연 임원회, 임시총회서 한기연 → 한교연으로 환원, 상임회장 3인 선출키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12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 군포제일교회 예멘홀에서 제8-1차 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가 공동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운동을 거교회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제8회기 들어 처음 열린 임원회에서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누구의 뜻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연합기관을 무조건 하나로 통합하기보다 먼저 동질성을 회복하고, 동행하게 되면 동거에 이르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최근 교계 원로들을 만나 대화할 기회가 많았다"면서 "한국교회가 매우 위태롭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 개교회와 교단, NGO 단체에 이르기까지 공동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한교총과의 통합을 목적으로 바꾸었던 현재의 명칭인 '한국기독교연합(KACC)'을 창립 당시의 본래 명칭인 '한국교회연합(CCKI)'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



의 정관 개정안을 받았으며, 상임회장 후보로 등록된 원종문 목사(봉합피어선 증경총회장), 김효종 목사(호헌 총회장), 박요한 목사(합동해의 총회장) 3인을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 개최 권을 대표회장에게 위임했으며, 대표회장은 오는 27일(목) 오전 11시 군포제일교회에서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공시했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이날 임원회에 기존 명예회장 13명에 조용기 목사 김삼환 목사 원팔원 목사 조용목 목사 김국경 목사 등 6명을 추가로 추천해 총 19명으로 확대했으며, 공동회장 3명, 부회장 8명,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감사 2인 등 총합을 목적으로 바꾸었던 현재의 명칭인 '한국기독교연합(KACC)'을 창립 당시의 본래 명칭인 '한국교회연합(CCKI)'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 위해 합심기도 한편 이날 제8-1차 임원회에 앞서 임원 및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조찬 기도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려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마리아 중창단의 찬양에 이어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심히 큰 능력"(고후4:7-11)을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직전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가 인사한 후 김바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망하셨는가 오히려 구원의 산 소망이 되셨다"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침체기가 아니라 연단기"라며 "박해를 받는다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우리 맘속에 분노 격정 근심을 쌓지 말고 대신 예수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임원 상임, 특별위원장 조찬기도회, 고 호소했다.

# 세계복음화중앙협, 한국기독교선교대상6개부문 시상식 개최

## 사장 소진우 목사, 부흥선교부문 대상수상 받아!



(사)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총재:엄기호 목사, 대표회장:박철규 목사)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그랜드엠베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한국기독교선교대상 6개 부문(목회자, 부흥선교, 국제선교, 기독교실업인, 여성지도자, 특수선교)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기독교선교대상 수상식에 앞서 본회 상임회장, 준비위원장 양명환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상임회장 최길환 목사가 기도를, 공동회장 신광준 목사가 성경봉독(사 52:7 롬 10:14-15절)하고, 일산순복음영산교회 브니엘성가대의 감동어린 찬양에 이어 본회 총재, 한기총대표

회장 엄기호 목사는 "아름다운 발음 부탁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따라서 이사장 이규학 감독(인천제일교회)의 인사와 수석부총재 고병수 목사(창곡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시상식은 본회 대표회장 박철규 목사(새마음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어 부총재 전태규 목사(서광교회)가 심사경위보고에 이어 선교대상 시상식 시상위원, 이사장 이규학 감독이 수상자에게 상패 수여를, 총재 엄기호 목사가 수상자에게 매달 수여를, 실무부총재 김두식 목사가 상패 낭독, 대표회장 박철규 목사가 수상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따라서

꽃다발증정과 수상자인사, 일산순복음영산교회(남성중찬단)의 특별찬양이 이어졌다.

아울러 제3부 친교 및 오찬에서 부총재 전용만 목사(성신교회)가 오찬 기도를, 식후행사로는 기념촬영, 케이크절단, 각 수상자별 기념촬영 등 축하의 시간이 진행되었다.

이날 부흥선교부문 대상을 수상한 소진우 목사(예복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성령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의 3대 목표에 전념하고 부흥선교를 위하여 매진할 것이라며 대상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날 부흥선교대상을 수상한 예복교회 담임 소진우 목사는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현 사장이다.



또한 기독교실업인부문 대상을 수상한 체의승 목사(대의미선교회)는 "80세의 나이에 상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대상을 받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러면 저 체 목사는 "75년 전 고등학교 시절 전 세계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면

서 현재 전 세계에 109개의 교회와 신학교를 세웠다고 밝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20년을 더 살게 해 주신다면 나머지 91개 교회와 신학교를 더 세우면 200개 교회와 신학교가 완성될 것이라며 비전을 제시하고 먼 훗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두 번째 큰 상인 예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의의면류관을 받는 것이 꿈"이

라며 대상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강영선 목사(일산순복음영산교회), 국제선교부문 대상을 수상한 데스카 마사아키 목사(다카사고교회), 여성지도자부문 김금숙 목사(새생명교회협동), 특수선교(교정)부문 김영애 권사(교정복지선교 사역) 등이 각각 수상소감을 피력했다.

정기남 기자(jtpress@hanmail.net)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INCE 1983.6.13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

<http://www.mokpojuan.com>

# 멀틱사이드교회

The multi Site Church



**담임목사**  
**모 상 련**

**부 목 사 :** 모정선 박민수 성삼수 모성은  
**파송선교사 :** 임재선 김은미 안윤기 김진희 신길현  
백현주 송영관 최문정 김미경  
**전 도 사 :** 추정희 윤영옥 송선택  
**협동전도사 :** 전공소아이(베트남) 정순말(남약교육)  
**시 무 장 로 :** 송영문 천은상 정승안 이현필  
김정서 김선호 모상후 송현중  
**은 퇴 장 로 :** 고재련 원복희 장광호  
**협 동 장 로 :** 이병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리를 행복하게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목포주안교회 목포시 청호로 159 (북항동) ☎ 061)272-4908, 276-1006  
남약주안교회 무안군 삼향읍 남약5로 60번길 17 ☎ 061-287-0692  
용해주안교회 목포시 용해지구로 61(연산동) 삼양빌딩 301호 ☎ 061-277-0691





# 2018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석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 제목 : 참 사랑

성경 : 요한복음 3:16 찬양 : 104장

우리는 복음을 너무 많이 듣다보니 귀한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죽임의 자리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의 성탄절, 부활절, 주일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하는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먼저 생각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선물도 기독교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든 이웃이 함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복된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은 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통해서 아들의 주관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 제목 : 참 구원

성경 : 요한복음 3:17 찬양 : 294장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3:17) 우리는 이 참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값없이 받아서 가치를 모르고 있지는 않지요!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옥과 천국 사이에 십자가라는 다리를 넘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올리며 무서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막16:17-18)."

### 제목 : 불쌍히 여겨주소서

성경 : 눅19:35-43 찬양 : 204장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후를 보면 시각장애인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을 만난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만 한다면 문제 해결 받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그때까지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눅18:38)." 라고 외쳤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눅18:41)" 그 순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도록 주님의 걸음을 멈추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 제목 : 좋은날 보기를 위하여

성경 : 시편34:11-14 찬양 : 507장

살아가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죽을 일이 와도 죽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 수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장 복된 언어는 '감사'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대로 그 자리에서 살아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공동묘지와 납골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감사로 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사할 일이 옵니다.

### 제목 : 사명을 능력으로 1

성경 : 고전4:9-21 찬양 : 370장

우리는 사도바울의 신앙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다름과 시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너희 욕심으로 나온 것 아니냐?'라고 물어봅시다. 목회자와 사역자의 사명은 맡겨진 영혼위해 하나님 나라 갈 때 까지 이끄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고전4:14-15에서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점은 의무와 사랑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무보다는 구원의 감동으로 사역하라고 합니다. 직분이 사명이 될 때 부흥이 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돌보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사명을 능력으로 2

성경 : 고전4:9-21 찬양 : 374장

사도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 들은 세

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합니다. 부활과 천국이 없으면 선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걸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리문제, 은사문제 등이 있었듯이 지금을 살고 있는 교회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은사를 사용할 때도 품위 있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이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전14:39-40)." 믿은 잘하고 행동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기도의 행동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전4:20)."

### 제목 :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경 : 시편2:7-9 찬양 : 342장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2:7)." 하나님과 우리사이에 관계를 다시 강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처럼 일대일로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부르짖음은 '주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감정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부르짖으세요. 그리하면 열방의 유업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선교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위가 땅 끝까지 이르러다(시2:8)'

### 제목 :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성경 : 누가복음4:16-30 찬양 : 220장

우리가 새사람을 입었으면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음란, 두려움, 탐심 등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끊어주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언어를 줄을 끊으셨도다 (시107:14)."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누군가에게 초점을 두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한사람이 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삼년 육 개월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타의 한 과부에게 기름부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나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 제목 : 은혜 받을 때입니다

성경 : 고린도후서 6:1-2 찬양 : 218장

과거에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줄 때 받아 먹어"라고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들은 체면 때문에 먹고 싶어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주시는 때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 꼭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고후6:2) 사람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저자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전3:4)."라고 조언합니다. 사도바울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도구요 복된 그

릇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 제목 : 기쁜 소식

성경 : 고전15:1-4 찬양 : 293장

오늘날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묘지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묘지내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기에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매 맞고 잠 못 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천국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 허락하신 것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붙잡고 사

##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십시오

계3:7-9

먼저 다윗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이는 다윗 왕이 유다 나라를 세우고 그가 거하는 성읍을 다윗 성읍이라 칭하여(삼하5:7-9) 그 성읍에 절름발이와 소경은 들어갈 수 없게 하여 합당한 자만 허락한 것을 가리켜 다윗의 열쇠라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림자요 그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열쇠가 실상인 것입니다.



장한국 목사

- 예정진리 총회장
- 주사랑교회 담임

성경상 주님이 천국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지요(마16:19) 또 계18에 사랑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음을 말씀했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랑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사랑의 열쇠로 열어주신 것이요 주님이 무덤에 묻히시므로 우리 열매 없는 죽음 아래 있었던 음부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곧 음부의 열쇠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주님 안에서 천국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심이 천국열쇠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금춘대교회에 계신 주님이요 재림하실 분으로 이어지는 그 주님이 가지신 열쇠를 말씀한 것이지요. 이는 재림 하신 주님이 새우실 천년왕국을 열어주시는 문, 또 그 왕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 주님이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나 아무도 닫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됐음을 말씀하시며 천년왕국에서 누릴 기업을 믿음의 실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누구도 가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경이나 합당한 이 진리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믿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는 영적 절름발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지요.

주님은 '내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치 아니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주 재림 예언의 말씀을 믿고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은 능력이나 하나님께는 가장 큰 능력을 계시한 것이요, 그 말씀을 죽기까지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치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곧 순교까지 하게 됐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 하는 사탄의 회당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와서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리라. 신약시대인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나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짓되게 증거하는 거짓말쟁이들이요, 이로써 성도들의 영을 죽이고 순교 성도들의 몸도 죽이는 살인자들이 된 것이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들은 음부에 들어갔다가 백보좌 심판 때에 다시 나와서 천국에서 위대한 영광을 누리라는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 소진우 목사 2017년-2019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 · 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 2017년 2월

- 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 6-9 감람산기도원(이옥란원장)
- 13-17 선교지 세미나
- 20-22 초대총만교회(김국남목사)
- 27-1 중동교회(서종표목사)

### 2017년 3월

- 6-10 필리핀예복교회(한예비및선교지부문)

### 봄철 축복 대 심방기간

- 3-5 홍주교회(고영석목사)
- 6 오산리금식기도원(김경환원장)
- 9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10-13 오정성화교회(이주형목사)
- 17-18 정기노회
- 18-20 영태교회(정진수목사)
- 24-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017년 5월

-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8-12 내팔산교회(이영금목사)
- 15-17 주영광교회(이재준목사)
- 21-24 사랑의빛교회(오성민목사)
- 29-31 초대교회(윤호준목사)

### 2017년 6월

-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4-8 빛과소금교회(송영만목사)

- 12-16 선교지시역자세미나
- 18-30 본교회2주연속심방대상회

### 2017년 7월

-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3-6 광선수영관(방민석원장)
- 10-12 사랑의교회(조진목사)
- 17-19 모리교회(조진목사)
- 24-28 선교지신학생어문세미나
- 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017년 8월

- 3 안양감말산기도원(임예진원장)
- 7-10 임마누엘수영관(이수영원장)
- 1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 14-17 광운기도원(김민배원장)
- 21-24 감람산기도원(이옥란원장)
-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8-31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 2017년 9월

- 4-8 은누리복음교회(이수연목사)
- 11-14 교단총회
- 18-21 풍기교회(백현기목사)
- 2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5-27 비전교회(김경환목사)

### 2017년 10월

- 2-5 추석주간

### 9-10 정기노회

- 16-18 주사랑교회(조연우목사)
- 22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30-4 인도사역자문주관

### 2017년 11월

- 5-8 주안중앙교회(박순목목사)
- 13-15 동계부흥성회(예복교회)
- 19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0-22 열린중앙교회(신동훈목사)
- 27-1 필리핀사역자컨퍼런스

### 2017년 12월

- 4-6 삼풍교회(고정원)
- 11-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16-21 과천예복교회(노영수목사)
- 26-29 송유성신앙위헌산기도원

### 2018년 1월

- 1-3 양림지역연합성회(회장홍성정목사)
- 8-10 상대교회(황인옥목사)
- 14 은전교회(송지영목사)
-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15-18 배방중앙침례교회(양명환)
- 21-24 안양성문교회(윤노원목사)
- 29-1 광운기도원(김민배원장)

### 2018년 2월

- 5-8 감람산기도원(이옥란원장)
- 11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12-17 설주간

- 19-21 점촌교회(김위수목사)
- 26-28 실용교회(조만희목사)

### 2018년 3월

- 1 안양감말산기도원(임예진원장)
-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3월은 봄철 축복 대 심방의 달

- 1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4 공평성경교회(조재홍목사)
- 9-11 선동교회(한성익목사)
- 16-26 예복교회부흥회(소진우목사)
- 29-3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018년 4월

- 1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4 공평성경교회(조재홍목사)
- 9-11 선동교회(한성익목사)
- 16-26 예복교회부흥회(소진우목사)
- 29-3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018년 5월

- 31-3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4 안양감말산기도원(임예진원장)
- 7-10 진주기도원(김진원원장)
- 14 오산리금식기도원(김경환원장)
- 16-24 마추시역부흥회
-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6월 7일은 안식일

- 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 6-8 실용산기도원(노베드로원장)

### 9-10 행복으로가는교회(최석규목사)

- 13-16 광운기도원(김민배원장)
- 19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0-23 감람산기도원(이옥란원장)
- 27-30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 2018년 9월

- 2-5 운정사랑교회(홍성근목사)
- 10-13 교단총회
- 13 평화의동산(미종진목사)
- 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17-20 연대연합교회(박승원목사)
- 24-28 선교연합집회

### 2018년 10월

- 1-4 다나델교회(김명수목사)
- 8-10 옥성교회(유중수목사)
- 12 오산리금식기도원(김경환원장)
-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15-17 정기노회
- 18-19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 21-25 은전교회(송지영목사)
- 26 양평기도원
- 29-2 선교연합집회

### 2018년 11월

-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5-7 행복이넘치는교회(마영건 목사)
- 8 안양감말산기도원(임예진원장)
- 12-14 영광교회(송성준목사)

### 15 보라비전교회(구경모 목사)

- 19-21 경원교회(김원경 목사)
- 26-28 제천예복교회(김대중 목사)

### 2018년 12월

-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3-5 삼원교회(고정원목사)
- 10-13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16-21 본교회부흥회
- 25-29 송유성영신을 위한산기도원

### 2019년 1월

- 1-3 경기도부흥연합성회(회장-홍성정 목사)
- 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 5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6-9 주영광교회(김진원목사)
- 14-17 임마누엘교회(양명환목사)
- 21-23 평양교회(김경규목사)
- 28-1 선교지부문

### 2019년 2월

-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4-7 감람산기도원(이옥란원장)
- 11-14 임마누엘교회(양명환목사)
- 17-20 부기리복음교회(회장-신건태 목사)
- 25-27 보라비전교회(구경모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주소: 경기도의정부시누원로40 (장암동)



# 소강석목사, 미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봉사상 금상수상 이준영 목사, 월간 씨드에이지 창간 감사예배

## 한국사회 또는 한국교회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씨드에이지 발간



지난 12월 23일 오후 5:10 새에덴교회 주일 3부예배 시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봉사상 금상'을 전달 받았다. 원래 소강석 목사 본인이 미국으로 가서 직접 수상을 해야 하지만 바쁜 목회일정으로 인하여 데이비드 전 목사가 대리 수상한 후에 한국에 와서 전달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 사회 봉사상 금상의 경우 미국에서 500시간 이상을 봉사해야 받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상이며 의미와 가치가 있다.



소강석 목사가 금상을 수상하게 된 이유는 2007년부터 12년 간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행사를 진행하면서 한 미우호증진을 위한 민간외교에 헌신적으로 섬겨왔으며 미국 현지에서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들, 보훈병원에 입원 중인 참전용사들, 미망인들, 실

종자, 포로자 가족들, 미연방 상하의원, 국방 관계자들을 위한 보은행사를 하며 한미 간의 우정과 회생을 선양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에는 버지니아 주에 있는 '장전호전투 기념비' 제막비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L.A지역 노숙자

들을 위한 담요와 음식을 지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트럼프 대통령 사회 봉사상 상장과 메달, 그리고 배지를 수여 받게 되었다며 수상 소감을 피력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고 밝혔다.

인생 2막의 시대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람찬 생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취지로 창간되는 "월간 씨드에이지 창간 감사예배 및 발간인 모임"이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선교관에서 지난 12월22일(토) 오전 11시 50여명의 내, 외빈과 발간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발행인 이준영 목사는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말한다. 원로목자교회 담임목사인 김재용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인생낙조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 되어야 한다."며 "씨드에이지가 노년의 삶을 풍요롭고 품위 있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편집위원인 박익수는 씨드에이지가 나아가야 할 목적과 취지를 밝히고 박재천 목사(수도권원로목사회 회장)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고 밝혔다.



교 총장) 선한승 박사(한국노동교육학회 회장) 차재완 장로(AD농어촌반송선교회 회장) 유연환 목사(무지개서는 마을 대표)가 격려사를, 김현수 목사(꿈너머 꿈교회) 김태영 목사(한국상당교육원장) 강봉규 목사(한국선교세계연맹 대표)가 축사를, 편집인 강신욱 목사가 광고를 하고 이승진 목사(수정교회)의 오찬기도로 행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 앞서 허은혜 목사(편집위원)는 특별한송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 씨드에이지는 앞으로 은퇴자 학교를 설립하고 은퇴자 사회의 소외된 한층이 아니라 중심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행사의 의미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주제라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 祝 2019년 謹賀新年 예정총회(웨신) 신년하례 / 강도사 고시 공고

## 표어 : 평강이 넘치는 총회 (요 20:21)

### 웨신총회 임원

<b>총회장</b>  허창범 목사	<b>직전총회장</b>  허창범 목사	<b>제1부총회장</b>  박정균 목사	<b>제2부총회장</b>  정순욱 목사	<b>총무</b>  이준영 목사
<b>서기</b>  성용구 목사	<b>부서기</b>  조영신 목사	<b>회록서기</b>  지요한 목사	<b>부회록서기</b>  최선너 목사	<b>회계</b>  마순덕 목사
<b>부회계</b>  최정수 목사				

### 2019년 예정총회 [웨신] 신년하례 일시

- 일시 : 2019년 1월 3일(목) 오전 11시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89, (지번 영등포구 신길동 253-25)
- 장소 : 백악관웨딩문화원(신동역 4번 출구)
- 전화 : 백악관웨딩문화원 02-842-7200
- 총무 : 010-6878-1324
- 알림 : 총회 임원 및 각 노회 분담금 내역은 공문을 참조

◆ 찬조 및 기념품 협찬하실 분은 총회본부로 연락바랍니다.  
◆ 우체국 : 013821-01-002737  
예금주 :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회 계 : 마순덕 목사 H.P 010-4630-0091

**목사안수 및 교단 가입문의**  
HP 총회장 010-8604-6076 총무 010-6878-1324

웨신총회 사무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72, (302호) ☎(02)835-2606-7 Fax (02)835-2068 http://ws21.org

### 2019. 총회 강도사 고시

1. 고시일시 : 2019년 2월 22일(금) 오전 11시
2. 고시장소 : 총회본부  
주소 : 073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72, (302호)  
☎ 02-835-2606-7 Fax 02-835-2608
3. 고시과목
  - (1) 필기고사 : 조직신학 [범위 : 기독교론, 교회론] 교회사 [범위 : 종교 개혁사] 헌법 [범위 : 정치신조] (\* 고시 청원자에게는 예지를 드립니다.)
  - (2) 는 문 : ① "21세기 교회 지도자의 정체성" [A4 용지 7매 내외]
  - (3) 설교실기 : 본문/ "롬 : 1장 17절" 설교 제목과 내용 전문 제출 [설교 실기 약 5분 내외 A4용지 5매]
  - (4) 면 점 : 반드시 정장 착용
4. 고시료 : 30만원 입금계좌 우체국/ 013821-01-002737  
예금주 :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5. 접수기간 : 주후2019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마감일까지 논문과 설교문 제출, 고시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6. 고시청원서 제출처 : 총회본부(사무실) 아래 총회 주소 전화번호 참고.  
◆ 강도사 고시 청원서는 총회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자격 : 웨신대학원 M.Div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웨신총회 인준신학교 졸업자, 본 총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또는 연구원 졸업자, 또는 본 총회가 인정하는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 상세한 내용은 총회 사무처와 총무에게 문의 바랍니다.  
☎ 총회 02-835-2606-7 총무 이준영 목사 010-6878-1324

# 당뇨나 혈압, B형간염으로 고생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의료인들에게 희소식!!!

당뇨나 고혈압, 아토피 등의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90일간 순수 국산 마늘을 발효시켜 만든 '알리오' 제품을 권해 드립니다. 수많은 목사님 & 장로님들 그리고 의료인들이 알리오를 복용한 결과 >> 혈압과 당뇨 등 여러 난치병들에 대한 마늘의 효능 효과가 기존 논문의 발표 대로 분명한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본 제품을 9개월째 복용하고 계신 주품 교회 최성은 목사님은 "지금 까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제품을 복용해 봤지만 알리오 만큼 좋은 제품은 없었다. 알리오가 여러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 지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고 하시며 주변사람들에게 알리오를 통해 직접 경험하신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신다.

이미 마늘의 효과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여러 기관 및 학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 ★ 마늘이 인체에 미치는 주요 작용 ★

[FDA 자료와 KBS 생노병사의 방영 자료 요약]

- 항암작용 및 예방
- 강정 강장에 효과
- 고혈압 예방
- 노화예방
- 피부노화방지
- 당뇨병 치유
- 간기능 활성화
- 소화작용 촉진
- 면역력 강화
- 혈행개선
- 고지혈, 항산화작용

암, 난치병 등 질병 치료에 대한 마늘의 효능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일상에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을 정도로 마늘을 섭취 하기란 쉽지 않다. ㈜지앤에이치바이오의 '알리오'는 다량의(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치) 살아 있는 국내산 생마늘을 그대로 발효 시킨 제품이며 천연미생물을 이용한 것으로 마늘 특유의 냄새와 맛을 제거하여 복용에 거부감이 없으며 대신 흡수력과 영양성분은 증폭시키는데 성공한 제품이다. 한편 (주)지앤에이치바이오에서는 중부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한방건강관리학과 박사과정 교수로 자문위원으로, 이 분야 권위 있는 식품영양학 교수, 의사(의학박사), 한의사(한의학박사), 기술사 등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있다.

㈜지앤에이치 바이오가 보유하고 특허 "마늘 발효물을 포함하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제10-1608502호,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주를 이용한 마늘 발효물 및 이의 제조방법(등록) 10-20140174628"

- \*마늘 발효액 '알리오' 경희대학교 피부생명공학센터 알리오 연구 결과보고서 (2018.7.11) \*
- 발효액 시료에 대한 면역활성을 평가한 결과 농도 - 의존적인 우수한 활성이 관찰되었음.
  - 마우스를 이용한 복강 마크로파지에 농도 - 의존적인 경향으로 활성을 증진시켰음.
  - 장관면역 활성기 농도-의존적인 경향으로 활성을 증진시켰음.
  - 마우스를 이용한 NK세포(자연살해세포) 활성에 농도 - 의존적인 경향으로 활성을 증진시켰음.
  - 결론적으로 알리오 마늘 발효액은 선천면역계 및 적응면역계 세포를 자극하여 면역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70 한국 프라자 403호 Tel : 031-717-0015



주품교회 최성은 목사님  
010-9260-7991



한국역도 선수 공식을료선정= 2018. 7. 03. dc